

발전 속의 저발전: 싱가포르 동남아연구 발전사*

이 상 국**

1. 문제 제기: 무엇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인가?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을 전공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져 왔다. 연구자들은 순례를 하듯이 세계적인 수준의 동남아 관련 자료실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를 들르곤 한다. 여기에 더해 연중무휴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회의, 집담회, 토론회 등의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학술 활동들은 연구자들에게 연구결과물을 소개하는 장뿐만 아니라 동료 학자들과 폭넓게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등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과 ISEAS 출판부와 NUS 출판부에서 펴내는 저서들은 학술적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비록 단기간 동안만 머물더라도 일단 싱가포르에 있기만 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교류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동남아연구의 최신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동남아연구를 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남아연구의 화려한 향연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이것이 주로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되면서 과연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는 “싱가포르인”의 동남아연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동남아연구”라는 단어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인”자 하나만을 덧붙였을 뿐인데 그 의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 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동남아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학문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왜 이렇게 싱가포르는 애매모호한 학문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이는 싱가포르가 처해 왔던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조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미국의 동남아연구 발전사를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봤던 앤더슨(Anderson 1992)을 참조하자면, 싱가포르의 학문발전 과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싱가포르의 “환경적인” 조건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싱가포르 역사의 시작은 영국이 동양과 서양을 잇기 위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역할과 위치는 독립 이후에도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식민행정관료, 사업가, 쿨리(노동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물결처럼 싱가포르에 흘러 들어오고 나갔다. 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도 사람들의 물결 속에 한 파고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동 속에서 내부(local)과 외부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유동성(fluidity)이 싱가포르 사회의 큰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는 싱가포르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자들에 의한 연구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립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의 국적이 아니라 지식 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개념 정립에서 여전히 불편한 점이 남는다. 연계와 유동성은 정도의 문제이지 싱가포르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시 유동적인 특징이 크게 나타나는 이민국이며, 호주와 유럽 국가들 역시 그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에서 싱가포르처럼 애매모호한 동남아연구의 정체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유동성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지인 학자들의 참여도 및 공헌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나라들에서는 외부학자들의 참여도 있지만 현지인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동남아연구를 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지인 학자들의 참여와 공헌이 외부 학자들에 비해서 미약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가령 미국의 동남아연구에서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와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을 쉽게 떠올리며 “미국”의 동남아연구와 “미국인”의 동남아연구 사이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싱가포르인 학자를 떠올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와 “싱가포르인”의 동남아연구 사이에 크나큰 간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내부인들의 참여가 낮았을까? 이는 싱가포르가 너무 작은 국가라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 학문의 영역을 포함하여 - 반드시 외부의 힘을 빌어야 했기 때문일까? 같은 맥락에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에서 외부인 학자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유형의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수한 계기가 있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속에서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

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논의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영어계 동남아연구의 역사와 중국어계 동남아연구의 역사를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두 언어영역에서 이루어진 동남아연구가 어떻게 (저)발전을 이루어져왔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두 영역의 각기 다른 발전 경로는 동남아연구를 넘어서 싱가포르에서 전반적인 학문의 역사적인 형성이 어떻게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언어, 학문,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다르게 결합되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9년 6월-7월, 2010년 1월에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이 기간중에 NUS 도서관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컬렉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ISEAS 도서관 자료를 참조했고, 주요 학자들과의 인터뷰도 시행됐다.

2.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의 태동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근대적 학문 활동이 개시된 때는 영국이 식민지배를 개시한 1819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배 초기에 주로 식민행정관료들과 언론인들이 학자군을 형성하며 이 지역에 관해서, 특히 말레이 세계에 관해서, 지식을 생산해나갔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학자들로 무어(J. H. Moor), 크로퍼드(John Crawford), 로간(J. R. Logan)을 들 수 있다. 무어는 그가 발행했던 신문에 발표한 글들에 기초하여 1837년에 이 지역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를 발간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크로퍼드는 1856년에 버마와 동남아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동남아 지역을 다루는 *Descriptive Dictionary*를 발간했고, 로간은 1847년과 1867년 사

이에 *Journal of the Indian Archipelago and Eastern Asia*를 발간했다 (Reid 2004: 12-13; Reid 1999: 12).

그러나 왕립아시아학회 해협지부(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창립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1877년 11월 4일 일군의 식민행정관료들은 싱가포르의 라플스도서관에 모여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와 그 주변 지역을 보다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그 학회를 창설한 것이다. 이 학회의 원래 이름은 해협아시아학회(Straits Asiatic Society)였으나 1878년 5월에 런던에 있는 왕립아시아학회로부터 지부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명칭이 왕립아시아학회 해협지부로 바뀌었다(JSBRAS,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호, 1878: iii).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학회의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1923년에는 왕립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64년에는 왕립아시아학회 말레이시아지부(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로 조직의 이름이 변경됐다.

첫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것을 이 학회의 규정(Rules)에 명시해 놓았다. 첫째, 말라카 해협과 주변 나라들과 관계된 주제들에 관한 연구, 둘째, 학술지에 논문 발표, 셋째, 학회의 자료들을 보관하는 도서관 설립이다. 이것을 보면 이 학회가 연구, 출판,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전적으로 학술적인 연구에 매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첫번째 목적에 언급된 “주변국”의 범위이다. 이 학회의 창립 회장인 호세(Hose 1878: 1)는 창립연설에서 주변국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변국”이라는 표현은 넓고도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이 학회가 남부와 동부의 아시아(Southern and Eastern Asia)의 여러 지역을 존중하며 교류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학회의 주요 관심은 물론 말라카 반도(Peninsular of Malacca), 북쪽으로 테나서림 지역들(Tenasserim Provinces), 대인도양 군도(the Great Indian Archipelago), 그리고 서쪽의 수마트라에서 동쪽의 뉴기니아에 이르러 아름다운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적도 열도에 둘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세는 주변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지리적 개념인 도서부 동남아(Maritime Southeast Asia)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그가 생각하는 주변국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언어적, 문화적 관점에서 개념화하면서 “말라야”가 바로 가장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범주 개념이라고 제안한다. 그의 제안대로 말라야라는 명칭은 영국령 말라야만을 일컫는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레이어를 말하는 지역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호세의 위의 언급과 나머지 부분의 연설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동남아시아”를 명시하는 어떠한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그는 “남부와 동부의 아시아”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아시아 남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일컫는 것으로 오늘날의 동남아시아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동남아시아”라는 명칭이 여러 학자들이(e.g. Emmerson 1984) 언급한대로 20세기의 발견물이라는 단초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 하필 식민행정관료들이 주가 된 학자들 집단이 말라카 해협과 주변국, 달리 말해 말라야 지역을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회를 조직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말라야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1874년 1월에 팡코르(Pankor) 협정을 체결하면서 페락에 고문관(Adviser)를 두게

된다. 이것은 말레이 반도를 영토적으로 지배하려는 식민적 야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회는 1874년 이후에 영국의 정치적인 개입이 본격화되고 말레이 주(States)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Chee 1995: 87).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는 학문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뒤로는 정치적인 야욕을 숨기면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호세(1878: 3)는 창립연설문에서 지식은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며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실 그들의 학문적인 진정성을 이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the Straits/Malayan/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학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술지의 명칭도 변경됨)에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연구들을 발표하면서 드러내 보였다.

이 학회의 규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학술지의 발간은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 학술지는 1942-45년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학문적인 성과를 알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학술지가 그간 펴낸 방대한 양의 논문들과 저서들, 기타 출판물들은 이 학회가 말라야/싱가포르의 학문 발전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이바지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치(Chee 1995: 91)의 분류를 참조하자면, 이 저널에 실린 연구물들을 다음과 같이 세계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사 분야로 동물학, 식물학, 민족학, 인류학, 지질학, 기후학 분야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말레이 연구로 말레이 언어, 고전, 관습, 민속, 공예품 등이 이에 들어간다. 셋째, 말라야 역사로 말라야의 각 주(State)의 역사에 관련된 논문들이 이에 포함된다.¹⁾

1) 그러나 치(1995: 91)가 언급한 대로 이러한 단순한 분류로는 이 저널에 실린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학술지에 실린 글들의 주제

초기에 학자들은,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영국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주로 개별 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맥스웰(W. E. Maxwell)과 윌킨슨(R. J. Wilkinson)이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비록 학문적인 열정이 학회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왔지만, 질적으로 수준높은 연구들이 생산됐던 시기는 1930년대와 1940년대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예를 들자면 윈스테트(R. O. Winstedt), 렌츠(Anker Rentse), 브라델(Ronald Braddel), 셰퍼드(M. C. ff. Sheppard) 등을 들 수 있다.²⁾

사실상 이 학회가 초기에 펴냈던 대부분의 논문들은 말레이 세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들은 말레이 세계 이외의 지역, 가령 대륙 동남아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비록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 학회의 주요 목적이었지만, 그들의 학문적인 탐구는 말레이 세계, 그중에서도 말레이 반도에 집중됐다. 같은 말레이 세계이지만 네덜란드령 식민지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록 버마가 1880년대에 영국 식민지배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 이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버마에 관련된 논문을 그 시기의 학술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말레이 주들을 행정적으로 다스려야하는 현실적인 임무 앞에서 말레이 반도 세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이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비록 그들이 학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연구에서 제국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경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1878년과 1963년 사이에 실린 논문들의 서지 사항을 담은 Index Malaysian (Lim and Wijasuriya 1970)을 참조해야할 것이다.

2) 대표적인 연구들의 예를 들자면 윈스테트의 “A History of Johor 1365-1895” (1932), “A History of Selangor” (1934), “A History of Malaya” (1935), 윈스테트와 윌킨슨이 공저한 “A History of Perak” (1934), 윌킨슨의 “Early Indian Influence in Malaysia” (1935), “The Malacca Sultanate” (1935), 렌츠의 “History of Kelantan, Part 1” (1934), 리니한(W. A. Linehan)의 “A History of Pahang” (1936); 브라델의 “An Introduction of the Study of Ancient Times in the Malay Peninsula” (1937-41), “Notes on Ancient Time of Malaya” (1947-51), 셰퍼드의 “A Short History of Trengganu” (1949)이다.

향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윈스테트(1935: 256, Chee 1995: 99에서 재인용)가 언급한 다음의 표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회사의 이익이 네덜란드를 좌지우지했다...사실상 이것은 독점적 시스템이며 어떤 동양의 체제나 그 이전의 포르투갈의 체제보다 그 정도가 심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말레이의 부가 줄어들었고 말레이 문명이 쇠락하기에 이르르게 되어 영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말레이 주들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처해 있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 학자들은 말레이의 쇠락을 막기 위해 영국이 개입했다고 하면서 영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탈식민주의 학자들이나 말라야 역사를 말라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려는 학자들에게서 비판이 대상이 되었다(Lim 1959; Khoo 1968). 그러나 식민 학자들의 연구를 그들이 당시 처해 있었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들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 정당한 일일 것이다. 일개인의 식민 학자가 제국주의 광풍이 불던 그 시대적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현지를 연구하는 “순수한” 학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개인의 의식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경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민 학자들은 후학들이 학문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 그들의 유산은 1949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에 자리잡은 학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승되었다.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그 대학에 자리잡으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제도적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었다. 영어가 연구와 출판 활동의 언어로 계속 자리를 잡고 탈식민 상황에서 교육과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이른 시기에 식민 학자들이 영어로 이룩한 학문적 전통은 단절을 겪지 않고 후학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부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학문을 주도하면서 현지 학자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지 않는 유산도 남기게 되었다. 싱가포르 학문의 정체성의 문제가 이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3. 또 다른 전통: 중국어 동남아연구의 성립

역사가들의 연구는 중국과 난양³⁾(南洋) 사이에 해상 무역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e.g. Wang 1998). 중국은 도서 동남아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륙 동남아에 대해서는 안보적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근대 이전에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Wang 2005: 64). 영국이 인도에 대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고 중국에 대하여 개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중간 지역으로서 동남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싱가포르, 페낭 등의 영국령 식민지로 이주하면서 동남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Wang 2005: 64-65). 이러한 관심은 난양지역의 중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관심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1906년에 난징에서 지난(暨南)학당이 세워졌다(이 학교는 1927년에 지난대학이 되었다)(Seah 2008: 26).⁴⁾

3) 이하 “남양”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난양”이라고 표기하겠다. 필자는 한자 표기에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중국”(中國)이나 “대학교”(大學校)마저도 중국어식으로 표현을 해야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선택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부(인명, 지명 등)는 중국어/싱가포르 발음을 따르고 일부는 한글 발음을 따랐다.

4) 초기에 이 학당에서 수학한 인물중에서 대표적으로 리콩찬(Lee Kong Chian)을 들 수 있다. 그는 여섯살이던 1905년에 푸젠성에서 싱가포르로 이주를 해온 뒤 1908년

지난대학은 교육의 영역에서만 난양 지역과 관련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 그 대학은 난양 지역 연구에도 큰 관심을 두어왔는데, 마침내 1927년에 난양문화교육사업부(南洋文化教育事業部)라는 연구소를 설립하며 동남아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연구소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나노(난양) 열기(Fever)”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본은 20세기 초에 동남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당시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대만에 동남아연구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러한 열기와 연구의 흐름을 목도하고 중국에 돌아와 지난대학에 동남아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에 주도 세력이 되었다.

지난대학의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중국인 학자 일부가 이제 싱가포르에 이주해오면서 그 열기는 싱가포르에도 전수되었다. 1940년 3월 17일에 8명의 창립회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전개하기 위해 중국난양학회(中國南洋學會, South Seas Society)를 설립했는데, 창립회원중 3명이 지난대학의 연구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 학회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있었던 중국어 신문인 성주일보(星州日報)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5명의 창립회원이 바로 이 신문사에서 종사를 했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일본의 동남아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2명의 창립회원이 일본에서 공부했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eah 2007: 138-141). 이 학회 설립의 역사적 의미는 왕립아시아학회 해협지부의 창립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Franke 1978: ii).

초기에 이들 학자들의 정체성은 중국지향적이었다. 이 학회의 명

에서 1911년 사이에 지난학당에서 공부했다. 리공찬은 훗날 큰 사업가가 되었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 개인의 재산을 희사했다(Seah 2008; Huang 2009).

칭에 “중국”이 들어갔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중국을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여겼고 그들 자신을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화교”라고 여겼던 것이다. 왕경우(Wang Gungwu 2003: 55)는 단기간 동안 방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국인 이민자들을 “체류자”(Sojourner)라고 명명했었는데, 그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이 학회가 중국지향적이었다는 것은 이 학회가 발행하던 학회지인 난양학보(南洋學報, *Journal of South Seas Society*)의 연도 표기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회지는 중국식 연호를 따랐는데, 가령 제1호 저널이 발간된 해인 1940년이, 중화민국의 설립연도(1912년)가 기준이 된 연호 표기법에 따라, “민국이십구년”(民國二十九年)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 뒤에 언급되듯이, 체류자에서 거주민(settler)이 되면서 정체성의 지향도 변화를 겪게 된다.

왕립아시아학회 해협지부의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난양학회의 학술지도 학회의 목적을 규정에 명시해놓았다. 그 규정을 보면 이 학회의 목적은 첫째, 학술지, 논문, 지도의 발간, 둘째, 도서관과 연구소 설립, 셋째, 난양 국가들의 문화를 알리는 일이었다. 이에서 보듯이 난양학회는 학술적인 활동과 난양 문화 이해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비록 난양지역의 지리적인 경계가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난양학보에 대륙동남아와 관련된 논문들이 실렸다는 데서 그들이 생각하는 난양은 도서동남아에 더해 대륙동남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이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난양의 지리적 경계가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난양”이 “동남아시아”로 직접적으로 번역되고 두 단어가 번갈아 사용되는 것은 이 시기가 아니라 훗날에 나타나게 된다.

난양학회의 창립회원들은 대부분 역사가들이었고 학술지에 실린

대부분의 논문들도 이를 반영하여 대부분 역사학적 논문들이었다. 논문들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보면, 중국사료에 나타난 난양, 난양지역의 중국인, 고고학적 연구, 현지 관습, 식물, 동물, 신앙 체계 등이었다. 학술지에 실린 초기의 논문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논문들도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리기도 했다.

난양학회의 회원들중 슈윤치아오(Hsu Yun-ts'iao 또는 Xu Yunqiao, 许云樵)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받는다. 카리스마적 성격과 학문적 철저함을 겸비한 학자였던 그는 초기에 난양학보의 주간을 맡으며 난양학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탄역성(Tan Yeok Seong) 또한, 비록 창립회원은 아니었지만, 학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무엇보다 그 학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이 두 학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중국어계 학문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Wang 2005: 66; Wang 2004: 94). 왕정우의 초기 학문도 이 두 학자들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Wang 2004: 148). 왕정우는 슈윤치아오가 치열한 학자였으며 그 학문적 철저함은 오늘날의 어떤 학자도 견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필자에게 회고한 바 있다(인터뷰, 2010년 1월 5일).

난양학회는 난양학보를 중심으로 그들의 학문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학회가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격동의 시대를 맞게 된다. 바로 일본이 1942에서 1945년까지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싱가포르에서 학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전시의 중국 수도였던 충칭으로 옮겨가 자매 학회를 조직하며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슈윤치아오는 그 시기에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았다. 그가 남은 이유는 학회의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이 방치되도록 그냥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학회

의 자료들을 보호했다. 그의 이러한 일화는 이 학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Seah 2007: 143). 슈윤치아오의 사선을 넘나든 헌신은 난양학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구실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차대전이 끝나자 난양학회는 다시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그들의 활동 지향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했다. 이제 그들의 활동은 중국보다 현지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져 나갔다. 일반적으로 난양지역의 중국인들이 난양이 영원한 거처가 되고 신생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난양학회의 회원들은 비록 전시에 그들의 활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조직을 영구적으로 싱가포르에 두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들은 왕립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의 서양인 학자들과도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7년 5월 3일에 개최된 제8차 총회에서 7명의 서양인 학자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수여했다. 그들중에 윈스 테트, 쇠데스(George Coedès), 블라그덴(C. Co. Blagden)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Journal of the South Seas Society Vol. 10, No.2). 역으로 난양학회의 회원들은 왕립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의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령 슈윤치아오는 왕립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의 평생회원이 되었는데, 1946년과 1955년 사이에 고문으로 활동했고 1956년과 1973년에는 부회장을 역임했다(Seah 2007: 147). 난양학회의 중국계 학자들이 서양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서구적 개념의 동남아시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난양학보에 영어 논문들도 소수이지만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계 학자들은 1958년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는 난양학회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 계기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난양학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오던 슈윤치아오는 학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회 소유물을 개인의 소유물로 전용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으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의 퇴진과 더불어 학회의 운영은 다음 세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당시 대표적인 신진학자였던 왕경우는 슈윤치아오의 뒤를 이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난양학회의 주간으로 활동했다. 난양학회의 회칙도 1959년에 새로운 기운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Gwee 1978: 4-5). 왕경우는 난양학보를 이중언어 체제로 운영하면서 영어 논문을 확대해 가는 등 학술지의 세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⁵⁾ 난양학회 소속 학자들의 정체성도 보다 싱가포르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마침내 1958년 난양학회의 중국어 이름 표기인 “중국 난양학회”에서 “중국”이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난양학회의 학문적 전통과 유산이 1957년 난양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슈윤치아오를 비롯하여 중국계 학자들은 난양대학교에서 동남아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난양대학교는 말라야대학과 쌍벽을 이루며 현지인이 중심이 된 학문체계를 발전시키는 제도적인 장을 제공했다. 그러나 난양대학교와 거기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운명은 싱가포르 독립 이후의 정치상황 변동과 정부의 언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학문의 성쇠 역시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조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현지인 학자들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는 서양인들이 이룩한 성과에 견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인”을 규정하는 문제는 피할

5) 오늘날의 왕경우의 입장이 50여년전인 이 때에도 발견된다는 것이 흥미롭다. 왕경우는 필자에게 한국인 동남아연구자들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로 논문을 저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인터뷰, 2010년 1월 5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시기에 중국계 학자들이 자신들을 일시적인 “체류자”로 여겼던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을 “현지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말레이계와 인도계의 학문적 성과는 현지인의 학문적 성과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현지의 학문을 중국계 학문이라고 치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중국계 학문은 현지의 학문이었을까? 앞서 논의되었듯이, 이른 시기에 중국계 학자들은 일본의 동남아연구에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는 서양인 학자들에게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중국계 학문의 정체성 역시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현지”(local) 라는 것은 싱가포르의 맥락에서 보자면 본질적으로 고유한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섞이고, 스미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중국계 학문의 성쇠

앞서 언급되었듯이 난양대학교는 중국계 지식인들에게 동남아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여기에서 난양대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학교의 설립 이전에는 많은 수의 중국인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서 고등교육을 받았었다. 특히 지난대학과 샤먼(廈門)대학은 화교 학생들을 주로 받아들였던 대학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식민정부가 이를 금지함에 따라 말라야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져갔다. 말라야대학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영어 구사 능력이 구비가 안 된 많은 수의 중국계 학생들이 갈 곳은 아니었다.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표출되었지만, 1953년에 이르러서야 보다 적극적인 조

치들이 취해졌다. 1953년 1월에 탄락췌(Tan Lark Sye)는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 중국어 대학을 설립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 그 대학교의 설립 목적으로 첫째,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교육 추구의 기회 제공, 둘째 중고등학교 교사 훈련, 셋째, 국가를 위한 전문가 양성, 넷째, 고등 교육에 대해 증가하는 욕구 충족이었다. 싱가포르의 복건인 공동체가 대학 설립 운동에 동조를 하며 주룽(Jurong) 지역에 있는 500 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희사한 것이 큰 기폭제가 되어 마침내 1956년 3월 15일에 난양대학교가 정식으로 개교를 했다(Doraisamy 1969: 94; Seah 2005: 59).

난양대학교는 연구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동남아연구의 진흥에 힘쓰며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냈다. 이 대학교는 중국계 학자들이 중국어로 동남아연구를 전개해나는데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슈윤치아오였다. 그는 이 대학교에 참여하면서 난양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상 이것은 난양학회의 주관심 사항이기도 했다. 리콩찬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힘입어 난양연구소(南洋研究所, Institute of Southeast Asia)가 1957년에 설립되고 슈윤치아오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Seah 2006: 61). 연구소 이름에서 흥미로운 점은 “난양”의 영어 번역 표기가 그 이전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South Seas”가 아니라 “Southeast Asia”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때 즈음에 “Southeast Asia”라는 영어 표기가 일반적으로 중국계 학자들에게서 통용되었다는 것과 동남아연구에 대한 서구 학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난양대학교에 소속된 학자들은 이 시기에 비록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난양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난양연구(南洋研究,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의 창간호에 실려 있는 슈윤치아오(1959: vii)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말라야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연구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라야는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에는 더욱더 절실한 것이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의 형태를 본받아 지적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싱가포르, 말라야, 그리고 다른 동남아 나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슈윤치아오의 이러한 제안은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체로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결성된 해(1967)보다 훨씬 이전에, 심지어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가 결성된 해(1961)나 MAPHILINDO (Malay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가 결성된 해(1963)보다 앞서 나온 것이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양대학교는 동남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연구 기관을 넘어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Hsu 1959: vii).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난양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생산해 나갔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들의 지도를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대학원 과정에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갔다. 이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난양대학교의 학문적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난양학회 역시 이들로 인해 학회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난양대학교와 난양학회에서 중국어 중심의 동남아연구는 싱가포르대학교(University of Singapore)⁶⁾에서 이

루어진 영어 중심의 동남아연구와 더불어 큰 축을 형성했다. 중국어계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성과는 영어계 학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가령, ISEAS의 초대 소장이었던 해리 벤다(Harry Benda 1969: 6)는 난양대학교의 난양연구소가 동남아연구소의 자매 기관이라고 언급하며 그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으며, 싱가포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발간에 산과역할을 한 트레고닝(K. G. Tregonning)은 1961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국제동남아시아역사학자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Southeast Asian Historians)에 난양학회를 초빙할 정도로 그들의 학문적인 성과와 위치를 인정했다.

필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가 출판물의 다양성이나 현지인들의 참여도와 공헌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의 전성기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당시의 중국어계의 학문적인 활동을 보면, 난양학회에서 계속적으로 난양학보를 발간한 것과 더불어 *Nanyang Quarterly: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라는 영어 학술지를 1971년부터 1985년 사이에 발간하기도 했으며, 슈윤치아오는 난양대학교를 떠난 이후에 별도로 동남아연구소(Southeast Asian Researches Centre)를 설립했는데, 이곳에서 동남아연구(東南亞研究 *Journal of Southeast Asian Researches*)를 1965년부터 1971까지 발간했다. 한편 영어계에서는 1968년에 ISEAS가 설립됐고 1960년부터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1970년에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로 개칭)가 발간되었다. 또한 비록 동남아연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사(新社, Island Society)⁷⁾라는 단체에서 *Journal of the Island Society*(1967-73), *Island Society*

6) University of Malaya in Singapore가 1962년에 University of Singapore가 되었다.

7) 신사는 1966년에 난양학회의 회원들 중 일부가 신생국가인 싱가포르의 국가 건설에 조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서 순수한 학술적인 단체보다는 사회운동조직 성격을 띠었다(Ong 1978: 43-48).

Quarterly(1968-74)와 *Island Literature*(1967-72)를 발간하며 중문학, 해외거주 중국인,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중국어계 학자들은 중국어가 점점 더 주변화되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영어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식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독립 이후에도 영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영어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영어의 우세한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졌다. 비록 난양대학교의 설립이 중국어 교육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지만, 그 대학교는 변화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존재 의의를 확립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싱가포르가 말라야에 속해 있던 시기에(1965년 8월 이전), 난양대학교는 전 말라야 차원에서 대학의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학생들도 선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었다. 따라서 영어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표출되어왔다. 이러한 압력은 당시 취업 전선에서 싱가포르대학교 졸업생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난양대학교의 졸업생의 미래를 좀더 밝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에 난양대학교는 반정부 활동으로 정부여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을 괴롭혀왔었는데, 정부는 난양대를 탈바꿈시켜 반정부활동을 제압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Hong and Huang 2008: 113). 왕경우 보고서⁸⁾를 비롯하여 난양대학교를 구조조정하는 여러 제안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반정부 활동은 더욱더 커져갔다.

중국어 교육의 주변화는 중국어 초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서 드러났다. 1959년과 1978년 사이에 전체 학생 숫자

8)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의 일부였던 1965년에 왕경우의 주도하에 “왕경우 커리큘럼 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왕경우는 그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난양대 졸업생들이 균등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Yuan et al. 2004: 31-32).

에서 중국어 초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비율은 46%에서 11%로 떨어졌다(Goh et al. 1979, Kwok 2001: 499에서 재인용).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0년대 중반에 정부의 주도하에 영어는 거의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주요 언어로 자리잡았다. 정치인들과 교육가들은 “영어는 싱가포르가 현대적 기술과 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라고 강조했다(Turnbull 1982: 315). 영어는 정부가 사용하는 언어였고, 1971년에는 군대에서도 공식어가 되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Turnbull 1982: 315). 싱가포르 경제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는데, 영어구사능력이 외국자본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Gopinathan 1996: 282-283).

중국어의 주변화와 더불어, 중국어계 학자들의 학문적인 활동도 1970년대 이후로 점점 약화되어갔다. 가령 난양학회의 회원의 숫자는 1971년 215명이었으나, 1974년 159명으로, 1976년에는 149명으로, 1986년에는 102명으로 줄어들었다(Seah 2005: 88). 중국어 학문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난양대학교는 등록 학생의 감소와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의 압력 속에서 1975년 이후로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연합캠퍼스제도(Joint Campus Scheme)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하에서 난양대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싱가포르대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들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난양대학교를 영어계열 대학교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드디어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에 난양대학교를 싱가포르대학교에 합병시켜 NUS를 설립했다(Gopinathan 1996: 282; Seah 2005: 91-92).

난양대학교의 사실상의 종말은 중국어로 이루어졌던 동남아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0년 난양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되고 1956년 난양대학교의 설립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던 중국어

계 동남아연구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다. 왕경우(2005: 74)가 언급했듯이, 수십년동안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하나의 대안적인 전통이 난양대학교가 NUS에 편입되면서 주변화된 것이다. 만약 중국어계 학문이 그 제도적 기반을 잃지 않았다면, 싱가포르의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현재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양대학교의 종말과 더불어 현지학자가 중심이 된 동남아연구가 발전해나갈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 이후에 중국계 학자들 중 일부가 난양학회와 1982년에 조직된 아주연구학회(新加坡亚洲研究学会, Singapore Society of Asian Studies)에서 그 학회의 학술지인 아주문화(亞洲文化 Asian Culture)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Suryadinata 1998: 102), 이들의 연구 관심이 화인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 강한 제도, 약한 (현지인) 학문

중국어계 교육이, 특히 대학차원에서, 주변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지만, 영어계 교육은 영어로 교육받은 중국계가 주도하는 PAP 정부하에서 계속 그 중요성을 이어나갔다. 동남아연구에서 그 대조성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어계 동남아연구는 난양대학교의 쇠퇴와 더불어 이른 시기에 꽃피웠던 학문적 열망이 거의 사그라들었지만, 영어계 동남아연구는 식민 시기에 싹튼 전통이,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강력한 제도적인 기반을 두고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었다.

왕립아시아학회 해협/말라야지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싱가포르의 영어 대학교인 말라야대학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자. 말라야대학교

역사의 시작은 킹에드워드7세 의과학교가 세워진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8년에는 대학 수준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라플스칼리지(Raffles College)가 설립됐는데, 킹에드워드7세 의과학교와 합쳐져 1949년에 말라야대학교가 설립되었다. 말라야대학교의 설립 초기에 동남아를 전공한 교수로 우선 최초로 동남아시아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드러내는 역사연구 결과물인 *Southeast Asia*(1960)를 저술한 도비(E. H. G. Dobby)를 들 수 있다(Reid 2004: 18). 도비의 후배 교수들로는 휘틀리(Paul Wheatly)와 산두(Kemial Singh Sandhu)를 들 수 있다. 말라야대학교는 탈식민화와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발견하려 했고, 동남아시아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누구보다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인물은 1950년대 초에 역사학과의 학과장을 역임한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이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초기 학생으로, 왕경우, 왕린켄(Wong Lin Ken), 쿠카이킴(Khoo Kay Kim), 유니스티오(Eunice Thio), 순타라링암(R. Suntharalingam), 치앙하이딩(Chiang Hai Ding) 등을 들 수 있다. 트레고닝과 턴벌(Mary Turnbull)은 각각 1953년과 1955년에 그 학과의 교수로 부임하며 파킨슨의 노력에 힘을 보냈다(Ho 2008: 23).

그 학과에서 1960년에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를 발간한 것은 동남아연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학술지의 발간은 학문적으로 성숙한 플랫폼이 드디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누구보다도 트레고닝이 이 학술지가 간행되는 데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다. 트레고닝은 1950년대말에 왕립 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의 학술지와는 다른 성격의 학술지를 발간할 필요를 느꼈다. 비록 그 학회의 학술지가 앞서 다른 바와 같이 윈스

테트, 윌킨슨 등과 같은 학자들의 공헌으로 학문적인 명성을 확립했지만, 연구의 주요 관심이 영국 식민지배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탈식민화의 물결 속에서 그 학술지는 진부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받았다. 트레고닝은 그 학술지와는 달리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루고 지역의 주체성을 반영하며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학술지를 발간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Ho 2008: 17). 학술지 발간 외에도 그는 1961년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주도했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동남아시아역사학자대회⁹⁾를 조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Reid 2004: 14). 트레고닝이 주도한 이 두 사건은 싱가포르가 동남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60년대에 싱가포르에서는 전문적인 동남아연구 학술지인 *난양학보*, *왕립아시아학회 말라야지부의 학술지*를 펴내는 등 동남아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가 그 활동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발전을 목도하면서, 해리 벤다(1969: 4)는 사실상 싱가포르가 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현지 학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말라야대학교 싱가포르 캠퍼스(University of Malaya in Singapore¹⁰⁾)

9) 이것은 나중에 국제아시아역사학자대회(IAH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istorians of Asia) 결성에 근간이 되었다(Reid 2004: 14). 이를 반영하듯, 필자는 2010년 6월 22일-25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IAHA에 논문발표차 참석하였는데, 대부분의 발표논문들이 다른 아시아지역의 역사보다 동남아시아 역사에 관련되었다(<http://www.fas.nus.edu.sg/hist/iaha/index.htm> 참조).

10) 말라야대학교는 1959년에 두 개의 독립적인 캠퍼스 체제하에 운영되었는데 싱가포르 캠퍼스 외에 콰라룸푸르에도 캠퍼스(University of Malaya in Kuala Lumpur)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말라야대학교 콰라룸푸르 캠퍼스”는 지부에서 국립대로 지위가 바뀌며 “말라야대학교”로 개칭됐다(말라야대학교 홈페이지 www.um.edu.my)

는 1962년 싱가포르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싱가포르대학교는 여러 학과들과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며 연구 역량을 확대해나갔다. 라플스칼리지 시절에 설립된 역사학과와 지리학과 외에도 정치학과가 1961년에, 사회학과가 1965년도에 설립되었다.¹¹⁾

1963년에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센터(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가 대학 차원에서 동남아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하에 설립되었다. 그 센터는 경제학과, 지리학과, 역사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등의 관련 학과 및 대학 도서관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학제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전개하려 했다. 트레고닝은 이 센터의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그는 예일대, 코넬대, 하바드대, 스탠포드대 등을 방문하면서 동남아시아/아시아 연구소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외국학자들을 초빙하고 학자간 교류와 학술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원대하게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못했다. 트레고닝이 1967년 싱가포르를 떠나게 되자 그 활동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센터는 ISEAS와 나중에 NUS에 설립된 동남아학과의 전신이라고 여겨졌다(Ho 2008: 30).

새롭게 등장하며 동남아연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담기 위하여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는, 앞서 언급했듯이, 1970년에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로 이름이 바뀌었다. 호치팀(Ho Chi tim 2008: 153)이 언급하듯이 학술지의 명칭 개칭은 동남아연구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연구가 크게 증가했고 동남아연구가 학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학술지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현지 학자 또는 지역 학

참조).

11) 이에 대한 정보는 NUS 홈페이지(www.nus.edu.sg)내 학과 정보를 참조했다.

자들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공헌은 외부 학자로부터 왔다. 1960년부터 1979년도까지 게재한 저자들을 통계를 보면 60%가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Ho 2008: 153). 나머지 40%는 동남아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학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이 그룹에서 외국인 학자들을 제외하면 현지 학자들의 비중은 더욱더 줄어든다.

1970년대에 싱가포르에서, 특히 싱가포르대학교에서, 현지 학자들의 낮은 참여와 그에 따라 외국학자들의 높은 참여로 인해 나타났던 문제점은 주요한 당사자의 다음의 언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Ooi Jin Bee 1971: 35)

싱가포르대학교는 두가지 요소가 혼성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첫째는 대부분 우리 사회과학 학과들의 연원이 짧다는 것이고, 둘째는 몇 학과들에서 현지인 교원의 낮은 점유율과 외국인 교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록 자극을 주고 지적인 열기를 더해주는 외국인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높은 점유율과 잦은 이동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위의 언급은 현지인 교원의 낮은 점유율과 외국인 교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학문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만 존재하던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819년 근대 싱가포르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싱가포르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계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할은 비단 무역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인들의 참여와 공헌은 싱가포르가 독립한 이후에도 적실성을 잃지 않았다.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급속히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

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발전 및 국가 건설을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 앞에서,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은 연구에 초점을 두기보다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생들은 학자보다 정부공무원이 되는 길을 걷도록 인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1년 싱가포르대학교 사회학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첸(Chen 1971: 48)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학과의 대학원에 단지 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사과정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한참 뒤인 21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중언어정책”(Dual Language Policy) 역시 동남아연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황지안리 Huang Jianli 인터뷰, 2010년 1월 7일). 이 정책 하에서 싱가포르 국민은 영어와 소위 “모어들(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에 하나를 익혀야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복건, 조주 등 남중국에서 유래한 사람들로서 영어는 물론 “지정된” 모어조차도 제대로 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연구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실로 난망한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 정부가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물적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주변 국가와 협력해 나가는 것은 국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1967년 ASEAN 결성되고 지역 공동체 대한 의식이 싹트면서 이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1968년 ISEAS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ISEAS의 설립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물론 ISEAS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연구소는 아니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이전에 난양대학교와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동남아연구와 관련된 연구소가 설립됐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소들은 대학내의 학자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종종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연구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ISEAS의 시작과 운영 형태는 이와는 달랐다. 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핵심 주체는 정부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소가 학술적인 연구소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인적 자원을 충분히 수급받으면서 ISEAS는 싱가포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쌓아나갔다. ISEAS의 동남아연구는 곧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역으로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의 역사는 ISEAS의 동남아연구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는 표현이 아니었다. 그 정도로 ISEAS는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를 대표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해나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ISEAS의 설립은 신생 독립국인 싱가포르가 생존을 위해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야 하는 조건에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과 이와 동시에 ASEAN이 출범하며 지역 통합의 정신이 대두됐던 1960년대의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 속에서 이 지역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ASEAN이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에 언급한 목표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진흥”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im et al. 1998: 2). ISEAS의 설립 목표중 하나는 동남아시아인들이 자기 나라보다 역내의 다른 국가를 연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ISEAS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켄쉬(Goh Keng Swee)가 누구보다도 이 연구소를 통해 편협한 국가중심적인 관점을 극복하기를 희망했다(Wang 2005: 71-72).

고갱쉬는 새로운 연구소를 운영할 우수한 학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그는 연구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학자를 소장으로 초빙하려 했다. 이리하여 당시 예일대의 역사학자인 해리 벤다가 1968-1969년에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그의 뒤를 이어 모나쉬(Monash)대학교의 역사학자인 레게(J. D. Legge)가 1969-1970년에 2대 소장으로 재직했고, 럿거스(Rutgers)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실버스타인(Josef Silverstein)이 1970-1972년에 3대 소장을 역임했으며,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말레이시아출신 지리학자인 산두(K. S. Sandhu)가 1972년에 4대 소장이 되었다. 산두는 1992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기전까지 20년 동안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ISEA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켰다(Lim et al. 1998: ix).

ISEAS의 초기 소장들은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동남아연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이를 실현하고 학문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국을 자주 방문했다. 벤다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역사학대회에 참석했고 지역의 연구 기관들의 모임에도 참석했으며 학술적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레게 역시 마닐라, 방콕 등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갔다. 실버스타인도 버마, 태국, 수마트라, 자바 등지를 방문하면서 이 일에 역점을 두었다(ISEAS Annual Report 1968:4; 1968/1970:3; 1970/1971: 9). 그러나 그 어떤 시기보다 산두가 소장으로 있던 시기에 ISEAS는 지역의 중심 연구소로 우뚝 서게 됐다. 산두의 재직 시기에 지역내의 학자들은 ISEAS가 왕성하게 제공했던 교류와 협력의 장에 참여하여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를 확장했다. 산두는 “동남아시아인을 위한 동남아연구의 창

립자’라고 일컬어졌다(Lim et al. 1998: 25).

비록 ISEAS는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동남아국가를 연구하는 싱가포르인 학자들을 양성하려고 다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의 싱가포르인 학자들만이 그러한 연구를 했던 것이다. ISEAS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며 성장시킨 싱가포르인 동남아연구자로, 베트남의 미디어를 연구한 러셀헝(Russel Heng), 태국 역사를 전공한 홍리사(Hong Lysa), 태국과 버마에 대하여 인류학적 연구를 한 아난다 라자(Ananda Rajah),¹²⁾ 인도네시아 정치를 연구한 레오나르드 세바스티안(Leonard Sebastian), 인도네시아 역사를 전공한 용문청(Yong Mun Cheong)을 들 수 있다(Lim et al. 1998: 25). 이러한 사실은 비록 ISEAS가 지역 연구소로서 또한 세계적인 연구소로서 당당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인에 의한 동남아연구는 그 연구소의 명망과 걸맞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소의 연구 활동의 대부분은 비싱가포르인의 지도 하에 지역 학자들과 해외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ISEAS의 성공은 싱가포르인에 의한 동남아연구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외국인 학자들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1968-1992)에, ISEAS는 정책지향적인 연구(경제학, 정치학, 안보학, 국제관계학)와 비정책적 연구(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사이에 균형을 적절히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싱가포르인의 소장 하에 있었던 ISEAS는 정책지향적인 연구에 더욱더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ISEAS 연구원들의 전공별 분포도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1992-1993년에 32.1%의 연구원들이 문화와 역사

12) 아난다 라자는 필자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다. 아난다 라자는 2007년 1월 9일, 필자가 학위논문을 완성해나가는 당시에, 그의 연구실에서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했다.

연구 프로그램에, 31.4%의 연구원들이 경제 연구 프로그램에, 22.6%의 연구자들이 전략 연구 프로그램에, 8.8%의 연구원들이 인도차이나 연구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기인 이때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전공 연구자가 총 연구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러나 이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갔다. 결국 1998/1999년에 경제학이 56.9%를 차지하고, 정치학, 안보학, 국제관계학이 23.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책 관련 전공이 80.7%에 이를 정도로 확고부동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비정책적인 학문은 18.3%로 줄어들었다.¹³⁾ 전공별 비중 변화는 ISEAS가 정책지향적인 연구소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ISEAS의 동남아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동남아연구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는 ISEAS의 동남아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의 정체성 문제와도 결부되었다.

1990년대 초에 동남아연구의 발전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NUS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 1991/92 학사년도에 학부 과정에 동남아학과가 설치된 것이다. 사실 그 학과를 만들자는 제안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1986년에 당시 인문사회대 학장이던 에드윈 툼부(Edwin Thumboo)가 인문사회대 산하 학과장 회의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었다. 이 이후로 찬헝치(Chan Heng Chee), 존윙(John Wong), 빅토르 새비지(Victor Savage), 통치키웅(Tong Chee Kiong) 등이 그 학과를 출범 시키려고 준비를 해왔다. 그 학과의 설립은 싱가포르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동남아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학과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무엇보다

13) 이에 대한 자료는 ISEAS의 연례보고서 각호를 참조했다.

강조한 것은 동남아 언어의 습득이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 여겼기 때문이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동남아학과는 단과대내의 다른 학과들과 협력하면서 학제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또한 ISEAS와도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ISEAS의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ISEAS의 초기의 리더십 형태와 달리, 동남아학과에서는 싱가포르인 학자들이 초기부터 지도력을 발휘해나갔다. 통치키옹이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뒤를 이어 빅토르 새비지가 1992-97년에, 홍리사가 1997-1999년에, 다시 빅토르 새비지가 1999-2001년에, 추아벙훗(Chua Beng Huat)이 2001-2003년에 학과장을 역임했다.¹⁴⁾ 이들 싱가포르인 학자들은 그 학과가 NUS의 자산으로 자리잡아나가는 데에 공헌을 크게 했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에 대학내의 동남아 지역연구 프로그램이 부침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NUS는 그것을 진흥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¹⁵⁾

동남아 지역연구를 발전시키려는 NUS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는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라 전체 대학 차원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2001년 7월에 아시아 연구소(ARI, Asia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했다. ARI 설립의 역사적인 의의는 1968년 ISEAS 설립의 역사적인 의의와 견줄 정도로 싱가포르가 주도하는 동남아연구를 세계 학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1960년대에 ISEAS의 초대 소장을 외부에서 찾았던 역사가 반복되듯 2000년대에 ARI 역시 외부에서 초대 소장을 찾았다. 마침내 2002년 7월에 동남아 역사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리드(Anthony Reid)가 초대 소장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2003년 3월에 공식적

14) 이 학과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학과의 연례 핸드북(Southeast Asian Studies Programme Handbook)과 홈페이지(www.fas.nus.edu.sg/sea)를 참조했다.

15) 동남아연구의 추세에 관한 문헌으로 Chou and Houben(2006), Halib and Huxley(1996), Hirschman et al.(1992), Reid(2003), Sears(2007)을 참조할 것.

으로 개소식이 거행됐다. 리드가 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중에 ARI는 아시아연구, 특히 동남아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하루라도 ARI에서 학술활동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ARI 연구 활동의 핵심 단위가 됐던 “연구클러스터”(Research Cluster)는 ARI 내외의 학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이를 살펴보면, 가빈 존스(Gavin Jones)가 이끌었던 “아시아의 변화하는 가족”(Changing Family in Asia), 브렌다 여(Brenda Yeoh)가 이끌었던 “아시아의 이주”(Asian Migration), 추 아벵훤이 이끌었던 “아시아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 in Asia), 브라이언 터너(Bryan Turner)가 이끌었던 “아시아 맥락에서 종교와 세계화”(Religion and Globalization in Asian Context), 리드가 이끌었던 “동남아-중국 교류”(Southeast Asia-China Interactions), 존 믹식(John Miksic)이 이끌었던 “동남아 고고학”(Southeast Asian Archaeology) 등이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들이 각 클러스터를 이끌었으며 이들의 주도 하에 그 클러스터들은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생산했다. ARI는 다음 세대 학자들을 양성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학원생들에게 각종의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현지조사비용 및 학위논문작성 연구비도 제공했다. 또한 NUS 교수들에게 연구년을 ARI에서 보내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리드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면서 2007년에 임기를 마쳤다. 그가 떠난 이후에 후임 소장을 임명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ARI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데, 일부 초기 연구원들이 ARI를 떠났고, “동남아-중국 교류” 클러스터 등 일부 클러스터가 사라지기도 했다. ISEAS와 마찬가지로 외국 학자가 초대 소장직을 맡으면서 디딤돌을 놓고, 이제는 ARI의 지도력이 현지인 학자의 손에 놓이게 됐다. ARI에 대하여 갖게 되는 우려증의 하

나는 이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학문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연구소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학내의 작은 연구소로 전락할 것인가이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NUS는 그간 동남아학과와 ARI를 설립하며 동남아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대학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NUS 인문사회대학에서 펴내는 “동남아연구자 목록”(Directory of Southeast Asianists)를 보면, 1993년에는 80명, 1996-97년에는 112명, 2001년에는 107명, 2009년에는 107명이 연구자로 수록되어 있다.¹⁶⁾ NUS내에 100명이 넘는 동남아 전공 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대학교가 동남아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세계 어느 대학이 이처럼 많은 수의 동남아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위의 목록에서 현지인 학자들이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때 문제는 달라진다. 현지 학자들의 수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현지인 학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싱가포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동남아 지역의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NUS 동남아연구의 학문적 성과가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NUS의 동남아연구는 전반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지인 학자의 동남아연구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필자는 싱가포르인 학자에 의한 싱가포르 연구가 동남아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동남아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싱가포르인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추아벙훅의 저서인 *Communitarian Ideology and Democracy in Singapore*(1995)

16) 2001년까지 목록이 책의 형태로 발간되었으나, 현재는 인문사회대학 온라인 (<http://ap3.fas.nus.edu.sg/cgi-bin/cgi8/stfdir/rshstfprofilelist.pl>)에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은 동남아에 관한 영향력 있는 저서 중의 하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¹⁷⁾ 현지 학자들의 연구의 열정과 자기 분야에서의 학문적 성과 역시 결코 외국인 학자들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남아연구가 주로 외국인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에서 이처럼 외국인 학자가 주도하고 현지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참여하고 있는 현상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관찰된다.

6. 결 론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는 그 태동에서부터 현지인 학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싱가포르 독립 이전에 이루어진 영어계 학문은 싱가포르가 말레이 세계의 일부일 때 대부분 식민행정관료였던 영국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학문의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자기들의 학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의 소유권은 영국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와 공유해야 하는가? 원주민 또는 현지인이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의 참여와 공헌이 거의 없었기에 싱가포르가 이 시기 영어계 학문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1940년대에 시작된 중국어계 학문 역시 명확하게 현지인의 학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주의 초기에 중

17)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Vol. 24 No. 1 (April 2009)은 동남아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들을 선정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러한 선정은 이 학술지의 국제자문위원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추아벙훙의 저서는 싱가포르인 학자의 저서로서는 유일하게 영향력 있는 저서 45권 목록내에 포함되어 있다.

국인 학자들은 “체류자”로서 그들의 조국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중국이었다. 그들이 싱가포르에서 펼친 학문은 난양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동남아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중국의 동남아연구는 일본의 “나뇨(난양) 열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중국, 일본, 영국 등에 영향을 받은 혼종(hybrid) 학자였다.

만약 그들이 독립 이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그들의 학문을 안착시켰으면, 현지인의 학문을 규명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싱가포르를 조국으로 삼는 온전한 현지인으로서 1960-70년대에 난양대학교에 근거를 두며 매우 활발하게 동남아연구를 펼쳐나갔던 적이 있다. 중국어계 동남아연구의 유산이 그 대학으로 전수되며 영어계 동남아연구와 쌍벽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계 동남아연구는 영어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 언어가 되면서 주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어계 동남아연구는 1980년에 난양대학교가 종말을 맞게 되면서 주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잃어버렸다. 비록 난양학회와 아주연구학회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어계 동남아연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그 연구도 화인과 관련된 주제에 한정되어 있어 본격적 의미의 동남아연구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영어계 동남아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하에 발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ISEAS의 설립은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연구를 발전시키려는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은 외국인 소장을 비롯한 외국인 연구원들이었다. 외국인 소장 하에서 ISEAS는 학문 분야간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동남아연구와 궤를 같이 했지만, 현지인 소장 하에서 ISEAS는 정책

지향적인 연구소로 변화하면서 과연 ISEAS의 “동남아연구”가 “동남아연구”인가하는 질문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논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EAS는 그간 싱가포르를 동남아연구의 선두주자로 서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EAS와 더불어 NUS 역시 영어계 동남아연구를 발전시키면서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 동남아학과의 설립은 동남아연구를 발전시키려는 NUS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ARI의 설립과 왕성한 활동은 NUS가 동남아연구의 최첨단에 서게 됐음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발전들은 NUS의 동남아연구의 폭과 깊이를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내국인 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현지인들에 의한 연구 활동이 그리 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싱가포르가 동남아연구를 발전시키면서 전형적으로 취한 전략은 세계적인 연구소를 세우고 능력있는 외국인 학자를 들여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싱가포르를 학자들이 모이고, 정보가 교류되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출판되는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현지인 학문을 강화시켰는지는 논쟁점으로 남는다. 외국인 학자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 과연 싱가포르 동남아연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의 정체성 규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주제어: 싱가포르, 동남아연구, 왕립아시아학회 해협/말라야/말레이시아지부, 난양학회, 난양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참고문헌〉

- Anderson, Benedict R. 1992. "The Changing Ecology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1950-1990." In Charles Hirschman,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Reflections from America*, pp. 25-40. Michigan: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Benda, Harry J. 1969. "Research in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Journal of the South Seas Society* 24: 1-10.
- Chee, Choy Meh nee Lum. 1995. "History of the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Journal of the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68(2): 81-148.
- Chen, Peter S. J. 1971. "Teaching and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in Singapore." *Nanyang Quarterly: A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 45-51.
- Chou, Cynthia, and Vincent Houben (eds.). 2006.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obby, E. H. G. 1950. *Southeast Asia*.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Doraisamy, T. R. (ed.). 1969. *150 Years of Education in Singapore*. Singapore: Teacher's Training College.
- Franke, Wolfgang. 1978. "Introduction." *Proceedings of Seminar on Societie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pp. i-iii. Singapore: Nanyang University.
- Goh, Keng Swee et al.. 1979. *The Report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1978*.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 Gopinathan, S. 1996. "Education." In Ernest C. T. Chew and Edwin Lee

- (eds.), *A History of Singapore*, pp. 268-287.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Gwee, Yee Hean. 1978. "South Seas Society: Past, Present and Future." *Proceedings of Seminar on Societie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pp.1-16. Singapore: Nanyang University.
- Halib, Mohammed, and Tim Huxley (eds.). 1996. *An Introduction to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irshman, Charles,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1992.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Reflections from America*. Michigan: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Ho, Chi Tim. 2008. *A Situated History of the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Studies (1960-1979)*.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Hong, Lysa, and Jianli Huang. 2008. *The Scripting of A National History: Singapore and Its Past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Hose, M. A. 1878. "Inaugural Address of the President."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12.
- Hsu, Yun-Ts'iao. 1959. "Prologue."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 1: vi-vii.
- Huang, Jianli. 2009. "Shifting Culture and Identity: Three Portraits of Singapore Entrepreneur Lee Kong Chian (1893-1967)." *Journal of the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82(1): 71-100.
- Khoo, Kay Kim. 1968.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and Writing of

- Malaysian History." *Peninjau Sejarah* 3(1): 1-12.
- Kwok, Kian-Woon. 2001. "Chinese-Educated Intellectuals in Singapore: Marginality, Memory and Modernity."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9(3): 495-519.
- Lim, Say Hup. 1959. "The Need for a Reinterpretation of Malayan History." *Malaya in History* 5(2): 41-43.
- Lim, Huck Tee and D. E. K. Wijasuriya. 1970. *Index Malaysiana: An Index to the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and the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878-1963*. Kuala Lumpur: Malaysi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 Lim, Pui Huen. P. et al.. 1998.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 Commemorative History 1968-1998*.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iu, Hong. "Southeast Asian Studies in Greater China."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3 (http://kyotoreview.cseas.kyoto-u.ac.jp/issue/issue2/article_232_p.html).
- Ong, Tee Wah. 1978. "The Island Society, Singapor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Proceedings of Seminar on Societie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pp. 40-54. Singapore: Nanyang University, Singapore.
- Ooi, Jin Bee. 1971. "Relevance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Singapore." *Nanyang Quarterly: A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 34-36.
- Reid, Anthony. 2004. "Studying Southeast Asia in a Globalized World." *Taiw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2): 3-18.
- Reid, Anthony (ed.). 2003.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Arizona: The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Arizona State University and The UCLA Asia Institute.

Reid, Anthony. 1999. "A Saucer Model of Southeast Asian Identity."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1): 7-23.

Seah, Leander Tze Ling. 2008. "Conceptualizing the Chinese World: Jinan University, Lee Kong Chian, and the Nanyang Connection, 1900-1942." *BiblioAsia* 4(1): 26-44.

Seah, Leander Tze Ling. 2005. *Historicizing Hybridity and Globalization: The South Seas Society in Singapore, 1940-2000*. Masters Thesis. The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eah, Leander Tze Ling. "Hybridity, Globalization, and the Creation of a Nanyang Identity: The South Seas Society in Singapore, 1940-1958." *Journal of the South Seas Society* (南洋學報 *Nanyang Xuebao*) 61: 134-151.

Sears, Laurie J. (ed.). 2007. *Knowing Southeast Asian Subject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uryadinata, Leo. 1998.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Past and Present." In Taufik Abdullah and Yekti Maunati (eds.), *Toward the Promo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Southeast Asia*, pp. 97-115. Jakarta: Program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Turnbull, C. M. 1982.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75*.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Wang, Gungwu. 2005. "Two Perspectives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and China." In Paul H. Kratoska, Remco Raben and Henk Schulte Nordholt (eds.), *Locating Southeast Asia*:

Geographies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Space, pp. 60-81.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Wang, Gungwu. 2004. "Chinese Political Culture and Scholarship about the Malay World." In Gregor Benton and Hong Liu (eds.), *Diasporic Chinese Ventures: The Life and Work of Wang Gungwu*, pp. 88-10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Wang, Gungwu. 2004. "Mixing Memory and Desire: Tracking the Migrant Cycles." In Gregor Benton and Hong Liu (eds.), *Diasporic Chinese Ventures: The Life and Work of Wang Gungwu*, pp. 140-15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Wang, Gungwu. 2003. *Don't Leave Home: Migration and the Chinese*.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Wang, Gungwu. 1998. *The Nanhai Trade: The Early History of Chines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Winstedt, R. O. 1935. "A History of Malaya."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3(1): 1-270.

Yuan, Yaoqing et al.. 2004. "Wang Gungwu on the Nantah Incident: An Interview." In Gregor Benton and Hong Liu, (eds.). *Diasporic Chinese Ventures: The Life and Work of Wang Gungwu*, pp. 31-4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정기 간행물 각호〉

Asian Culture (亞洲文化)

Isl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Island Society

Island Society Quarterly

Journal of the South Seas Society (南洋學報)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Journal of the Straits/Malayan/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Nanyang Quarterly: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연례보고서, 뉴스레터, 핸드북 각호〉

Annual Reports of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nual Reports of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Newsletters of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ewsletters of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Directory of Southeast Asianists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outheast Asian Programme Handbook,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인터뷰〉

왕경우(Wang, Gungwu), 2010년 1월 5일

황지안리(Huang, Jianli), 2010년 1월 7일

(2010. 7.30 투고; 2010. 9. 8 심사; 2010. 10. 14 게재확정)

<Abstract>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Lee Sang Koo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has had a problem with locating local scholarship from the outset. The initiation of English-track scholarship was done by British scholars while Chinese scholars in the beginning were not considered as local people but as sojourners who identified China as their fatherland. If the latter had successfully located their scholarship in the post-colonial environment of Singapore, the job of identifying local scholarship would have been much easier. Indeed, for some time in the 1960s-70s, there existed a relatively strong local scholarship that was based mainly at Nanyang University. However, they became marginalized as English became dominant not just in education but also in Singapore society.

Unlike the Chinese-track scholarship, the English-track scholarship in Singapore has developed greatly over the years. The establishment of ISEAS was the crystallized form of Singapore's endeavors to develop a Singapore brand of Southeast Asian studies to the world. Alongside ISEAS, NUS has carried on the English-track Southeast Asian studies and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in this academic field. The formation of the Southeast Asian Programme and ARI marked a cornerstone for NUS in advancing Southeast Asian studies. However, Singaporean scholarship continues to be weak in comparison to foreign scholarship.

In the absence of strong local scholarship, the typical way in which Singapore has chosen to develop Southeast Asian studies has been to establish world-class institutes and to bring in foreign talents. This strategy has perhaps paid off since it has situated Singapore as the prime place where scholars gather, information goes around and quality research outcomes are published. However, whether or not it has strengthened local scholarship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The dominant contribution of foreign scholars continues to pose the problem of whether the ownership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belongs to Singapore itself. The identification of scholarship in Singapore is an unsettled matter.

Key words: Singapore, Southeast Asian studies, Straits/Malayan/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outh Seas Society, N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sia Research Institute